가치있는 산림자원은 좋은 씨앗에서부터

– 양묘기술세미나서 종묘기술자 · 공무원 등 양묘발전 논의, 신기술도 발표 –

전국의 양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묘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양묘사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기술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전북 남원 켄싱턴리조트에서 종자 · 묘목 생산자, 각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원 전문가, 관련 학자, 산림 공무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양묘기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9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가치있는 산림자원은 좋은 씨앗부터'라는 주제 아래 열린 첫날 행사에서 우수 종자와 우량 묘목을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종묘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편백 등 난대수종 양묘방법, 체세포 배양에 의한 클론묘목 생산법 등 새로운 양묘기술도 발표됐습니다.

둘째날에는 남원시 운봉양묘장과 인근 조림성공지 현장을 돌아보며 위견을 나누는 현장 토론도 벌였습니다.

부산 신평동, 대전 송촌동 등에 내년 무궁화동산 조성

– 2012년 무궁화동산 사업지 13곳 선정…
홍천 모곡리, 포항 장성동, 전주 효자동 등 포함 –

내년에 조성될 무궁화동산 사업 후보지로 서울 종로구 청운동, 대전 대덕구 송촌동, 강원 홍천군 모곡리, 전북 전주시 효자동, 경북 포항시 장성동 등 전국 13개 시 · 도에서 각각 1곳씩 모두 13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지난달 전국지자체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2012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대상후보지 중 사업 목적에 적합한 대상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선정된 13곳에는 국비 50%를 지원해 무궁화를 심고 산책로와 벤치 등 기본적 편의시설을 갖춥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모두 25곳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수천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무궁화동산이 전국 곳곳에 만들어지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쉽게 나라꽃 무궁화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림청–산업은행 "산림치유서비스 확대"

– 22일 업무협약, 치유공간 넓히고 금융서비스 제공 "질 높아지고 투자도 늘 것" –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한국산업은행(은행장 강만수)과 손잡고 산림치유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이 힘을 합쳐 산림치유 공간을 더 넓히는 한편, 이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기관은 22일 오전 산림청 소회의실에서 이돈구 산림청장과 강만수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치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치유를 위한 공간을, 산업은행은 금융 서비스 및 자문 등을 각각 제공해 산림치유 관련 사업 활성화에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이번 업무 협약이 산림 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민간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림청은 국민이 좋은 산림치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단기적 대응에 한계가 있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산림치유 서비스의 공간을 넓히고 그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기술로 만든 시베리아산 펠릿, 첫 반입

– (주)탑인프라, 8일 인천항으로 3200t 들여와…국내생산량의 25%에 해당 –

부순수한 우리 기술로 해외에서 생산된 목재펠릿이 처음으로 국내에 반입됐다. 해외 산림자원개발 투자기업인 탑인프라는 8일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제조한 목재펠릿 3200t을 전용운반선을 통해 인천항으로 들여왔다.

그동안 해외 가공 공장에서 생산된 펠릿을 수입한 경우는 있었지만 국내 기업이 직접 현지에서 가공공장을 세워 제조한 펠릿이 반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들여온 펠릿은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펠릿 1만3000t의 25%에 이르는 물량으로 열병합 발전과 원예농가 시설하우스 난방에 이용된다.

러시아에서 산림자원개발 투자를 하겠다고 신고한 1호 기업인 주식회사 탑인프라는 지난 2년간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목재가공 등의 사업을 펼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도 투자하고 있는 지역 업체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러시아와 산림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하며 현지 투자환경을 조사하고 목재가공시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등 해외산림 투자 여건을 조성해 왔다. 또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과 협력해 현지 투자진출 간담회와 투자설명회 등을 열어 국내기업의 러시아 극동지역 산림자원 개발을 지원해 왔다. 따라서 이번 성과는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신뢰도에다 산림청과 총영사관의 지원이 이뤄낸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규태 산림청 국제협력과장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 할 신재생에너지 연료인 우드펠릿이 해외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 · 생산돼 첫 반입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목재펠릿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펠릿 생산기업과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